

Lubrizol, Avecia 염료첨가제 인수

페인트 · 코팅 시장입지 강화 전략 ... Avecia, 현금흐름 악화 위기

Lubrizol이 Avecia의 염료 첨가제 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인수대상은 영국 Huddersfield 플랜트 및 기술지원센터, 노스캐롤라이나주 Charlotte 및 싱가포르 기술지원센터이다.

Lubrizol에 따르면, Avecia의 염료 첨가제 사업은 연평균 약 5000만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코팅 및 잉크에 사용되는 폴리머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다.

Avecia의 염료 첨가제 사업은 Lubrizol의 FTI(Fluid Technologies for Industry) 사업부의 일부인 1억달러 매출규모의 페인트 · 코팅 · 잉크 사업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ubrizol은 인수 이후 페인트 · 코팅 · 잉크 사업 매출이 약 5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Avecia 직원 110명은 Lubrizol에 그대로 흡수될 전망이다.

Lubrizol은 FTI 사업확장을 목표로 적극적인 인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Avecia 인수 이전에 Dow Chemical의 Amerchol로부터 여러 퍼스널케어 제품 생산라인을 인수한 바 있다.

Lubrizol은 자사의 핵심사업인 운송사업으로부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FTI 사업확장도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인수가격은 EBITDA(Earnings Before Income Taxes, Depreciation & Amortization)의 약 8-9배로 책정됐는데, 이는 Lubrizol이 일반적으로 지불해 온 6.5-7.0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최근 Lubrizol이 성사시킨 거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러나 Lubrizol은 Avecia 사업을 발판으로 2006년까지 수익을 34억달러로 2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페인트 및 코팅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Avecia와 유사한 사업 인수거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Avecia의 염료 첨가제 사업은 수익률 12-15%로 Lubrizol의 9%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핵심 염료 첨가제 경쟁기업으로는 Byk Chemie, Ciba Specialty Chemicals 및 Degussa 등이 있다.

Avecia는 순수 정밀화학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염료 첨가제 사업 매각을 결정했으나 채권전문가들은 Avecia의 매각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채권전문가들에 따르면, 염료 첨가제 사업 및 2003년 Cytec에게 매각한 Mining Chemical 사업은 Avecia의 현금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 Avecia가 염료 첨가제 사업처분을 통해 주력하고자 하는 정밀화학 사업은 최근 하강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염료 첨가제 사업까지 매각할 경우 Avecia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권등급 평가기관인 Moody's Investor Service는 Avecia의 유동자산규모를 5억4000만달러로 평가하고 부정적 전망과 함께 Avecia의 신용등급을 2단계 하향조정했다.

<화학저널 2004/04/22>